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0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장로 선거 위한 공동의회 소집

1월 26일 4부예배 후 투표는 2월 16일에 실시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저녁 찬양예배 후 임시당회를 회집하여 제26대 장로 선거 절차에 따른 일정을 확정하였다.

일정에 의하면 장로 선거에 따른 공동의회를 오는 1월 26일(주일) 4부예배 후에 소집하기로 했으며, 투표는 2월 16일(주일) 4부예배 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장로 피택 방법으로, 추천은 배수 공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리고 공천후보자 명단 공고는 2월 2일 주일에, 공천자 명단 확정은 1월 29일에 있을 1월 정기당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단기수련회 이번 주에도 계속

지난 1월 7일 장로·교역자·안수집사 단기수련회를 시작으로 각 직분에 적합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기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수요일 1부예배와 2부예배 후에는 교구 일꾼을 대상으로, 18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단기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구 일꾼과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주 22일(수)에는 남녀전도회 임직원 단기수련회가, 24일(금)에는 직원 단기수련회가, 25일(토)에는 찬양대원 단기수련회가 있다.

장년1부 수양회 21일에 개최

장년1부(부장 정운석 장로, 지도 송태근 목사)는 오는 1월 21일(화)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겨울수양회를 개최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주제 아래 송태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되는 이 수양회는 30대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도간의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하면서 선택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교구 식구니까, 친척이니까,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 사탄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좋은 장로가 선출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다.

◎...새해들어 단기수련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지난 주간에는 교구일꾼들(수)과 교사

들(토)의 교육과 훈련이 있었다.

우리 교회가 92년 한 해 목회 지침인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도록”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과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19일) 오후 찬양예배에는 제직 헌신 예배로 드린다.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제직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살롬경로대학 23일 임시소집

지난 11월 방학에 들어간 살롬경로대학이 오는 1월 23일(목) 오전 11시 갈릴리홀에서 임시소집으로 모인다.

이 날 학생들은 방학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교제를 나누고 92년도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된다.

92년도 새 학기는 오는 4월에 개강한다.

신혼 가정은 새가정부로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신혼 가정 및 젊은 부부들의 대대적인 참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새가정부는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201호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부서의 특성상 가정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26일은 충현 세계 선교주일

각종 행사 마련, 선교 의식 고취 선교위원회 총회 오늘 4부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오는 26일 주일을 “충현 세계 선교주일”로 지킨다.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는 선교 주일은 금년에는 총회 선교부 주일과 병행하여 지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선교 주일에 맞추어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 선교지별로 위원을 선정하고 선교회원을 증원하였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일 공과 공부 및 설교도 그 내용의 초점을 선교에 맞춘다. 또한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 선교사들에게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를 비롯하여 11개 지역에 19명이다.

자세한 선교 주일 행사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선교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는 4부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실행위원과 기도위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등1,2,3부 겨울 수양회

20일부터 갈릴리홀에서

중등1부(부장 차신득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 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안경소 목사), 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김태준 목사)는 오는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3일 동안 갈릴리홀에서 겨울수양회를 개최한다.

신성종 목사와 안경소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제 아래 세 부서가 연합으로 진행한다.

이 수양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은 학생들이 부흥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중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비디오테이프 제작

송명희씨가 지난 1월 10일 금요일특별집회 시간에 간증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제작되어 테이프보급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직 원 모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성도를 찾습니다.

- 직 종 : 음영 담당(비디오, 음향, 기타)
- 제출서류 :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 문 의 : 음향실(본당 502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계2:12~29)

1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버가모 지역은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로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문화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전각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역사에 나타난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밧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또한 병을 고친다는 뱀신 아스클라피우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버가모 지역은 사단의 위가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계2:12)

당시 로마 군인들은 좌우에 날이 있는 단검을 사용했습니다. 찌막한 이 칼은 보기에는 시시해보여도 좌우에 날이 있기 때문에 날카롭기가 그 어느 칼 못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히브리어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시는 심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계2:13)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주소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란 지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영적인 현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였습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영적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본거지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고,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

에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지팡이를 잡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잡고 있는 지팡이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과같이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전각과 뱀신 아스클라피우스를 섬기는 전각이 있는 악마의 소굴,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서, 바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처럼 다른 것은 저버릴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만사를 먹게 됩니다. 만사를 준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마지막때에 어린양과 함께 우리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재판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이 담긴 주머니에서 검은 돌을 꺼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흰 돌을 꺼낸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흰 돌을 준다는 말은 무죄임을 선고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4, 15)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무에 빠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교훈의 내용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는 것과 행음이었습니 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음이란 육체적인 범죄와 함께 우상 숭배나 세상과의 타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계2:16)

회개한다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간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며 입으로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도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

2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두아디라 지역은 헬라주의자였던 셀로커스라는 사람이 창건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이들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또 이곳은 사도 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비단 장수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계2:18)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밖에 없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제우스신의 아들 아폴로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거짓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계2:19)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이 있었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계2:20, 21)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시돈왕의 딸이며 아합왕의 아내와(왕상16;왕하9, 10) 동명이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할 것을 권면하셨으나 그들은 회개치 않고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라고 했던 것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계2:23, 24)

침상에서 범죄하였으니 침상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해답이 에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계2:25~28)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잡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복음을 굳게 잡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영적 인도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계2:29)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임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충현의 젊은이들과 저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젊음이란 보배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젊음, 생동하는 젊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당시 61세였던 시어머니께서는 거동하시기도 힘든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18년이란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보살펴드리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한 결과, 75세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고 8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보배로운 젊은 시절을 세상 중심으로 사시고 나이 많아 정신이 흐릴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안타까워 늘 하시는 말씀이 '해가 있어야 길을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18년이란 세월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다보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부유하던 살림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열두 번이나 월세방으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기도

장년1부 수양회를 개최하면서

조숙진 집사(제4교구·장년1부 교사)

제목은 가족들의 구원 문제였고 두번째 기도 제목은 집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집은 방학동에서 강남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부족한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청춘은 이렇게 다 지나가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8:18)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1991년 어버이날에 서울에서 수여하는 효부상이란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렘1:24)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시무보님 추도식이 되면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젊음은 마치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땅에 묻으면 아

무 소용이 없고 비로소 그것을 캐내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광을 내면 낼수록 아름답고 빛난 보석이 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도 봄이 되면 만사를 제치시고 강화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씨를 뿌려야만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종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생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석과 같은 30대,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할 일 많은 30대에 인생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는 분명히 판가름나게 된다고 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이 영원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빈 손으로 태어나서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재산을 잠시 관리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와같이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 질병, 사고 등 많은 괴로움이 따르는 인생 여정을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

씀 위에 설 때, 신앙의 반석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가 됩니다. 인생의 안내자만 있으면 우리들은 바른 길로 나가서 바라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년1부는 이러한 인생의 안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월 21일 저녁 7시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수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은 30대의 모든 충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 기도위원 명단

◆아세아권1

이연순, 이의복, 장영옥, 조 숙, 조계진, 지숙원, 윤주현, 이상석, 문영규, 전승훈, 남궁조, 김길진, 김정조, 김창호, 권영주, 김종희, 서영남, 이혜숙, 차봉순, 이순희, 기인양, 김옥희, 유기림, 백광자, 최수희, 황광옥, 김상화, 이성근, 이용순, 강예모

◆아프리카권

박옥식, 오희명, 이의복, 전순자, 조미경, 이명자, 이춘실, 장수정, 정봉조, 민순애, 김상순, 김석운, 우순성, 전성자, 채영애, 김분녀,

남정애, 한명순, 정두연, 이영민, 전화형, 이길찬, 오미라, 이소현, 최남희

◆아메리카권

정필길, 정명주, 조준완, 김경희, 오화자, 김복희, 이요섭, 이병영, 이신동, 김형일, 이정철, 안춘진, 이철수, 임승진, 이윤복, 김은정, 이정률, 이진목, 차경자, 정미숙, 송영상, 김재춘, 최삼조, 김신경, 박미련, 이부성, 백정현, 박은숙, 조홍진

◆유럽권

송환천, 송진국, 최정남, 김기철, 김달현, 김병길, 정태두, 김세홍, 이태실, 이용현, 이만기, 정유채, 한천길, 김창국, 박효지, 강석란, 김선자, 김승옥, 박순옥, 안춘자, 유호순, 장정훈, 김옥희, 정운순,

조혜순, 황종임, 고창자, 김정선, 이광우, 장남희, 안광영, 정원주, 전용해, 조숙희, 김은희, 손경순, 이은혜, 홍은지, 정미순, 이평희, 유혜련, 임봉옥, 이석정, 김옥래, 김용섭, 현계식, 강동화, 이숙희, 정명섭, 김효정, 이해강

◆아세아권2

김정화, 김일주, 염숙현, 임신실, 필기복, 김옥선, 이남복, 정재금, 박정순, 성부자, 박윤석, 김명희, 고지현, 이현순, 이수자, 최선자, 문조영, 오현구, 박종학, 이금효, 이명숙, 성명희, 백종석, 김정숙, 박명숙, 정영자, 박용호, 강성자, 오계순, 이명종, 이은희, 김동호, 강기업

장로칼럼

새해의 다짐



정하우 장로
(기획위원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 충현교회에 새로운 사역을 92년에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새해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자신의 자량과 교만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도의 수고는 허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지기로서 취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절대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인간의 어떠한 봉사라도

하나님께는 완전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직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뜻에 가감 없이 온전히 충성되게 행하되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자임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작을 하신 이가 마지막에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모든 성도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확실히 믿고 이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계절과 통일 조국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주님의 명령인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과같이 주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강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불은 개인의 사악을 태워버리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이루어줍니다. 대사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 기도도 모범을 보이신 것같이 우리도 기도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권사회에서 24시간 릴레이식 기도를 시작한 지 이미 오래 전이고, 당회에서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교구순으로 같은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서도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충현교회를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려고 준비시키는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전도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교인이 개인 사정을 떠나 훈련을 쌓고 협력하여 어두운 곳으로 나가서 찬미의 제사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입술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의 심장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면 사랑의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정적 사고와 언어에서 떠나 주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본받아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긍정적 사고와 즐거운 얼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생활 속에 질서와 근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며, 근검한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짐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물질도 아껴 쓰는 생활의 모습이 새 신자들에게 보여지도록 나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호 칼럼은 남선우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회 91년도 총회를 마치고 그 동안 책임을 맡아온 자신이 본 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보람 있고 기뻐던 일, 후회스럽고 마음 아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안수집사회 운영일지를 펼쳐보았다. 잘못된 한계를 인간은 측정할 수 없고 비판하며 단정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성도의 보편성에 기준을 두어 교회를 위하여 정리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 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라고 하였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이 그 대언자가 되리라."고 말씀 하였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을 때 아론과 훌이 이 편과 저 편 손을 붙잡아 올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멸망시킨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로 알고 있다.

협력! 우리들은 동역자의 협력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행해야 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협력이 라는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봉사와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에게 협력은 믿음의 필수요 소망의 필수요 사랑의 필수인 것이다. 우리가 협력해서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눈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문

●독자의 글●

사랑과 협력, 그리고 삶의 기준

김여순 집사(제17교구)

제가 없는 것을 문제로 삼는 데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사랑과 관용으로 행하지 못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원망과 불순종이 따르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매말라갈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화목과 협력이 깨어지고 이해가 없어지게 된다. 협력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과 전도와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었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사라지게 되며 비방이 나오게 되고 협력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곳에 기준을 두고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

다. 안수집사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봉사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실수와 허물과 부족으로 나타났지만,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 다.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

울에게 임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이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열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

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안수집사회의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당회 결정 사항에 힘을 모아 협력했던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런 보람 뒤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잘못 전해져 참기 어렵고 마음 아팠던 세월은 간단한 해명으로 과거에 묻고 싶다.

새해는 밝아왔다. 금년에는 사랑과 협력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편에 삶의 기준을 두어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인종! 그것은 괴로운 인생의 안내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긴 이 땅 언이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

1992년도 당회 위원회 조직

· 당회서기:윤명식
· 당회부서기:이종석

위원회	위원장	지도	부지도	서기	회계	위 원	실 행 위 원
인사	당회장					윤명식, 정하우, 김영개, 손동운, 김차생, 하대선	
기획	정하우			서동석	이종국	윤명식, 김영개, 김차생, 이병학, 하대선, 박승준, 이 훈, 남선우, 손경수	이형수, 이승철, 이상석, 원성수, 김명섭
예배	김은호	윤용규	최순복 현정남	김방진		박인세, 송환창, 문홍구, 김천채	김인관, 최기홍, 이인상, 김정태, 이하영, 박인진, 김여순, 안병호, 엄균영, 이부성, 이인영, 권 철, 백죽심, 엄숙현, 왕진숙, 최수애, 김춘지
찬양	이 훈	송태근		윤성철	이창호	이종석, 이병학, 김천채, 송환창	감독:이관섭 한영숙, 최봉숙, 정경자
제1교육	송기홍	안경소		정광호	최성현	강모용, 김광남, 김종구, 오태희, 최무길, 윤필성, 차신득, 박영식, 엄필성	
제2교육	강은원	김양홍		김재명	오정현	박승준, 손경수, 최대원, 정운석, 김의철, 마성락, 강순용, 김재균	
제3교육	조선근	김성운		송환창	김천채	조인제, 박인세, 강순용, 이종석, 안익태	
교구	손동운	최인근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창호, 조인제, 최상규, 강순용, 이 훈, 김천채, 이병학, 김은호, 김경철, 정광호, 최대원, 박관영, 최무길, 박치민, 송환창	
전도	최상규	김해규		박상준	박문태	김경철, 박인세, 최무길, 김종구	강 협, 최기홍, 황영일, 이하영, 김여순, 고병국, 김춘권, 김홍우, 김상순, 장남희
세계선교	남선우	김창수		김형근	김춘권	최석주, 김영삼, 윤인현, 김의철, 하대선, 조인제, 김천채, 이병학	유정수, 반정현, 윤순전, 윤재춘, 이상권, 전성자, 이상하, 김영효, 김정길, 김현식, 김태전, 정위식, 김태연, 노성송, 김규종, 한만교, 조혜순, 남정애, 왕진숙, 이영옥, 안운진, 고금자, 박문태, 박홍규, 김시주, 박두영, 오미자, 박숙엽, 김진만, 김춘지, 이명자, 임무천, 이기성, 이교영, 장석두, 강철형, 김명자, 유국현, 이성애, 안석현, 이준석, 박철규, 양종섭, 손 철, 박영엽, 이실호, 이명중, 박정아, 정미자, 박태진, 지연희, 김인권, 김상순, 유순녀, 신일순, 신명희, 장봉노, 김순복, 김용순, 백죽심, 민건식, 박우순, 조연숙, 길재호, 이복희, 이용희, 한일언, 한영자, 김형선, 김복남, 윤우선, 김연근, 박도윤, 김삼열, 안노수, 김진호, 함용식, 소재철, 유장평, 장연돌, 박명엽, 강봉수, 배춘식, 오정남, 이인영, 최호일, 최원일, 진홍용, 조추자, 엄미숙, 한영숙
구제 건축	박치민	신표근		김경철		박인세, 강모용, 김재균, 윤명식, 이태규, 우기전, 김영개, 오진국, 최상규, 오정현, 이창호	최명환, 박상준, 채수경, 이교영
재정	김영개			송환창	김영길	윤명식, 정하우, 하대선, 오정현	
행정	하대선					이태규, 마성락, 오진국, 박관영, 김영길, 김재명	
감사	우기전			김광남		안익태, 김의철, 윤성철, 서일영, 김재명	

1992년도 당회 기관 조직

◆충현교회유지재단

이사장:김창인 이사:신성중, 김은호, 정하우, 하대선, 서동석, 최명환 감사:이태규, 최대원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김창인 부서장:마성락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원

이사장:윤명식 상임이사:이태규 이사:손동운, 조선근, 오태희, 김영개, 김차생,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강은원 감사:김경철, 이 훈

◆관허 충현출판사

발행인:신성중 지도:조동원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편집위원:윤명식, 오진국, 박승준, 이종국

◆관인충현유치원

원장:신성중 부장:강순용 지도:김정자 원감:정지자

◆충현기도원

원장:신성중 관리부장:김방진 총무:고병욱 위원:박치민, 최기홍, 박인진

◆장학회

회장:김의철 서기:이종국 회계:김광남 위원:이태규, 최대원

◆충현성경연구원

원장:신성중 원감:김차생 지도:이조용 부지도:김희수 교학담당:김재명 간사:김종근 회계:박인진 서무담당:이인영, 이윤복, 양미옥, 김한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원장:신성중 원감:김재명 지도:이조용 부지도:김희수 교학담당·회계:박인진 간사:김종근 서무담당:허명호 진행위원:오인근, 김영달,

김세홍, 이구연, 차기풍

◆충현도서관

도서관장:오태희 지도:최인근 서기:홍경숙 위원:신표근, 김광국, 조동원

◆충현상담실

상담교역자:이두란

◆안수집사회

고문:윤명식 회장:임봉남 지도:신표근 부회장:이하영 서기:정정주 부서기:강봉수 회계:주원홍, 이동명 특별회계:최기홍, 고병국 교육부장:한송규 선교부장:전홍렬, 김영수 예전부장:양종섭, 이병옥 봉사부장:채수경, 권명옥 찬양부장:이정우, 이관섭 교구부장:김정태 행사부장:김춘권, 박상준

◆권사회

고문:정하우, 최순복 회장:전순자 부회장(지회장):전명옥, 김상순, 한영숙, 장영옥 서기:조미경 부서기:엄숙현, 명정옥 회계:심영순 부회계:윤재춘

◆교재편찬위원회

지도:김성운 부지도:김희수, 김태준

■회계부

재정위원장:김영개 회계부장:김영길 부원:임봉남, 김두원, 유상태, 진학래, 박문태, 양삼주, 홍시오, 안중옥, 김보원, 박종현, 박병택, 박창서, 홍흥기, 조중광, 박남수, 이계인, 이성근, 오일우, 마도원, 김용석, 진홍용, 권장철, 이예경, 마숙전 최명환, 최지윤, 백종현, 송두섭